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예방을 받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한 남북 민간교류 등을 소재로 환담했다.

“민간교류 핵문제 분리 금강산관광 재개 기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예방을 받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정은 회장의 예방을 받고 “인천아시아간계 전후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단에서도) 해마다 신계사에서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관광 중단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관광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핵문제와 결부해서 풀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이다. 종교, 문화, 인도적 지원 등 민간차원의 교류는 핵문제와 분리시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은 “8·15를 맞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합동법회 봉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홍스님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이번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다례제를 통해 불교계가 남북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사회적경제 가능성 모색

날마다좋은날 '포럼' 콘텐츠개발 등 논의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오는 22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다'를 주제로 한 주제 강연과 '불교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찾다'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 강연은 유남희 전북대 산

학협력단 교수가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론을, 김광수 신나는조합 신나는기업 상생연구소장이 '불교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진경 오마이컴퍼니 대표가 '불교사회적경제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방안', 강대성 SK행복나래 대표가 '불교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판로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와 더불어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본부장과 김선배 불교사회적경제네트워크포럼 대표가 토론을 펼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15대 종회 문 닫기 전 한번 더

8월12일 임시회 개최 원로회의서 반려한 4건만 상정 집중 심의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제199회 중앙총회 임시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중앙총회(의장 향적스님)는 지난 19일 199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법규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 4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의안 접수기간은 8월5일까지다. 종헌의 경우 종법과는 달리 중앙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중앙총회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보좌위원장·종친의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제199회 임시회 소집을 결정했다. 의장 향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198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원로회의에 부의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종헌 130조 3항을 위반해 원로회의에서 토론 없이 반려됐다”면서 “15대 총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뜻을 모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종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만장일치 통과와 관련 법률적 자문을 청취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은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어 ‘위헌’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중앙총회위원들은 “15대 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15대 총회가 결사해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하안각 해제일 이후 임시회를 소집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는 임시회 개

회에 앞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헌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원로회의가 건의한 비구니 호계위원회 설치, 원로의원 불징계특권 신설, 사면·복권·경감 대상에서 멸빈자가 제외된 조항의 삭제 등도 종헌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처장 권우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제15대 중앙총회가 ‘결사해지’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면서 “더불어 불교광장, 삼화도량 등 정책모임에서도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근대문화유산이 미래의 국보 보물



홍다영 기자의 현장에서 hong12@ibulgyo.com

“등록문화재에 대해 사찰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을 피부로 느꼈다.” 지난 11일 등록문화재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의 한 위원이 한 말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불교계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라고 하면 몇 백 년 이상 된 국보나 보물만을 중시하면서 근대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 관련 등록문화재는 아쉽게도 극히 일부만이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최근 지정된 고양 흥국사의 대방을 비롯해 총 9건만 지정됐다. 수 십 건에 달하는 이웃종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등록문화재에 대해 소홀히 취급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관심과 역량을 모은다면 사찰 안에 있는 모든 성보가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불교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스템도 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근대성’이라는 기준에만 근거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 문화재청의 불교계 등록문화재 심의가 가속할 정도로 적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뿐 아니라 조각, 회화, 건축물 등 방대한 불교 근대문화유산을 평가하려면 현재 위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들이다.

불교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국 사찰에 많은 근대유산들이 남아있지만 일제강점기 산물이라는 인식이 높아 관리가 소홀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 대책 없이 소멸되면 성보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록문화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성보의 보존은 물론이고 국제 지원 및 전통사찰 지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조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려면 불교계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윤이상, 세계적 음악가”

정의화 국회의장·재단이사장 영담스님 통영 생가보존 등 기념사업 공감대 확인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선생 생가의 도로 편입을 추진하는 통영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영담스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면서 윤이상 선생의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고(故) 윤이상 선생은 유럽의 5대 작곡가이며,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교수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음악가 44인 가운데 한명으로 세계적인 예술가이다. 최고의 음악가 44인 중 20세기 작곡가는 윤이상 선생과 러시아의 스트라빈

스키 등 4명에 불과하다. 통영시는 윤이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윤이상국제음악제’를 만들고 520여명의 예산을 들여 ‘윤이상국제음악당’을 신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혀 ‘통영국제음악제’와 ‘통영국제음악당’으로 이름을 바꿔 빈축을 샀다. 더구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윤이상기념공원’을 ‘도천 테마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입장을 돌변해 오히려 통영시가 ‘윤이상 지우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이상 평화재단 이사장 영담스님을 만난 자리

에서 “통영은 경남의 보물고고 윤이상 선생의 보물고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화 의장은 “음악가이고 예술가인 윤이상 선생을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오는 9월 통영의 윤이상 생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통영·고성 지역구인 이근현 국회의원도 영담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윤이상 재단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다”면서 “행정적 문제가 있으니 통영시와 잘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30일 윤이상평화재단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윤이상 선생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입법부 수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으로 통영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근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영담스님은 “통영시가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생각을 복원해서 세계인들이 발견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통영시가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원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탈핵에너지연구소’ 창립준비 세미나

“원전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보편의 이유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전위기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정작 안전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탈핵안전연구소 창립준비세미나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원전위험과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주제로 한 발표

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스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삼중백화점 붕괴(1995년)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세월호 침몰(2014) 등의 재난사례를 지적하면서 “일상의 부패와 무사안일이 참사를 부른다”며 “생명에 대한 존엄과 근본적 권리가 담긴 원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

행된 세미나는 이준택 건국대 교수가 ‘우리나라/토목/플루토늄의 현주소와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각각 ‘원전체급제세미나 결과 및 연구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 독일 KIT원전해체안전기술자인 Martin Brandauer이 독일의 원전안전/해체연구소의 특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정부의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종합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흥선스님은 이날 세미나에서 “핵문제는 진영점검현상으로부터의 과제, ‘원전해체’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와 환경, 국토 전체가 걸려 있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허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2014년도 대정장학재단 장학생선발

지원자격

1. 2014년도 2학기 현재 2학년 혹은 3학년 재학생 (모든 학과 지원가능)
2. 직전 2개 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평균점수 85점 이상
3. 가족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액이 15만원 미만인 자(2013년도 기준)
4. 2014년도 2학기 휴학예정자 지원 불가(복학예정자는 지원 가능)
5.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도 지원 가능

장학금 혜택 및 선발인원

- 장 학 금 : 연간 500만원
- 선발인원 : 5명 내외
- 지원기간 : 심사 후 졸업시까지

선발절령

서류심사 후 면접

구비서류

1. 장학생선발 지원서(첨부파일)(지원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1부
2. 자기소개서(첨부파일)(지원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1부
3. 성적증명서(직전 2개 학기 분).....1부
4. 가족관계증명원.....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3년도 분)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동사무소 팩스민원 가능
6. 사회봉사확인서(불교사회단체 발급)
7. 교수추천서

접수기간

2014년 7월 21일 ~ 7월 31일(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 예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우편접수

접수처 및 문의

133-82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풍성빌딩 5층 재단법인 대정장학재단
☎ 02-3408-1712 / 010-3441-8380 홈페이지 : www.daejungaf.com

대 정 장 학 재 단

경전 연구회 10주년 기념 무/료/강/좌

이 시대의 고견하신 원순 큰스님을 모시고 경전연구회 주최로 「명추회요冥樞會要」를 강의합니다. 「명추회요」는 「종경록宗鏡錄: 영명연수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정리한 책입니다. 「명추회요」는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신통은 반야를 장애할 수 있다. 그림자는 진실이 아니다.” 즉, “마음을 바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불교 경전연구회에 모여서 함께 공부합니다.

- 강 주 _ 원순 큰스님
- 경 전 _ 명추회요(冥樞會要)
- 개 강 _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매월 4째 목요일)
- 장 소 _ 서울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 수 강 료 _ 무료
- 교 재 _ 법공양
- 모집대상 _ 공부하고 싶은 모든 스님
- 문 의 _ 회장 무각 010-8929-4457, 총무 선일 010-9364-0490
재무 법천 010-5350-9885